

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70s

피프티 패덤즈 (Fifty Fathoms) 런칭 3년 후인 1956년 선보인 블랑팡의 *바티스카프(Bathyscaphe)* 스타일은 세월이 흐르며 진화해왔다. 70년대에는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와 요일 창을 갖추고 3시 방향에서 날짜를 표시하는 대담한 느낌의 다이얼이 등장했다. 500피스 한정 생산하는 새로운 *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70s(Fifty Fathoms Bathyscaphe Day Date 70s)*는 현재 진행형인 블랑팡의 기술적 진화를 담고 있는 동시에 과거 모델의 매력까지 모두 품고 있다.

70년대 동안 블랑팡은 새로운 미학적 코드를 적용한 다이빙 시계들을 추가하며 *바티스카프* 라인을 진화시켰다. 이 모델들은 직사각형 형태의 인덱스와 매 5분 방사 형태로 나열된 아라비아 숫자를 갖춘 실버 다이얼 링이 특징이었다. 블랑팡은 이 유니크한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*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70s(Fifty Fathoms Bathyscaphe Day Date 70s)*를 소개했다. 이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의 다이얼은 3시 방향의 날짜, 요일 등 70년대 모델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. 빈티지 피스와 동일하게 이 새로운 모델 역시 바깥쪽 경계는 좀 더 진하고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연해지며 은은하게 그레데이션되는 그레이 컬러를 보여준다. 덕분에 다이얼 사이즈가 더 커진 느낌을 주며, 가독성 역시 개선되었다.

이 새로운 시계의 미학적 코드는 역사에서 영감을 받았지만, 시계 안에는 블랑팡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담겨 있다. 새틴 피니싱 처리한 43mm 사이즈 케이스에는 리퀴드메탈(Liquidmetal®) 소재의 인덱스에 세라믹 인서트를 갖춘 단방향 회전 베젤을 탑재했다.

500피스 한정 생산하는 *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70s(Fifty Fathoms Bathyscaphe Day Date 70s)*는 빈티지한 스타일의 앤티크 가죽, 세일 캔버스(sail-canvas), NATO 스트랩, 스틸 브레이슬릿 등 4가지 타입의 스트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